



인간적인 직원관리가 돋보이는 김해 현대 축산

- 취재 : 조진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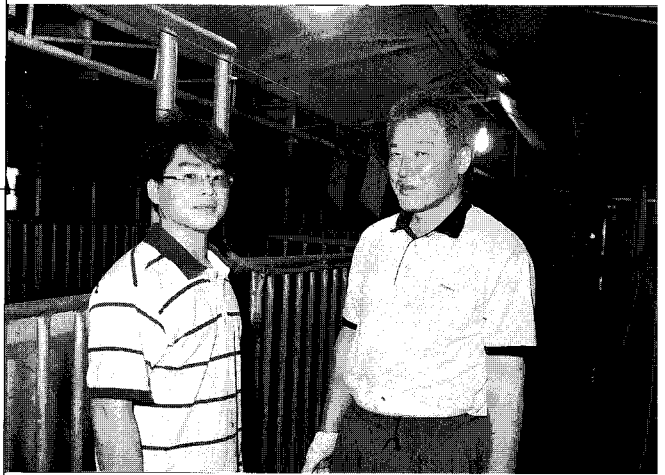
본회 김해지부 부지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경남양돈협동조합 이사로 있는 박재민 사장은 김해시 한림면 소재 4,000두 규모의 현대축산을 경영하고 있다.

양돈경력 25년의 그는 양돈장을 경영의 가장 핵심을 '인간관계'라고 믿고 있다.

"돼지를 키우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직원들과의 신뢰가 안정적인 농장 경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굳이 양돈장 업무에 관련된 일만이 아니다. 직원 한명 한명의 개인적인 환경과 여건을 알고자 하고, 내 농장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양돈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꼽는다. 내 농장에 대한 주위의 인식은 오늘날 우리 양돈인들이 양돈업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박 사장은 평생을 양돈인으로써만 살



▲현대축산 박재민 사장(우측)과 박경원 농장장

지 않는다. 15년간 검도를 해 오면서 김해 검도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역 봉사조직에 가입하여 자신만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2주간 관리시스템 도입한 4천두 규모 양돈장

경남 김해시 한림면 산속 높은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축산은 임신사 1동, 분만사 2동, 자돈사 2동, 육성사 2동, 비육사 2동, 퇴비사 1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평 총 1천3백

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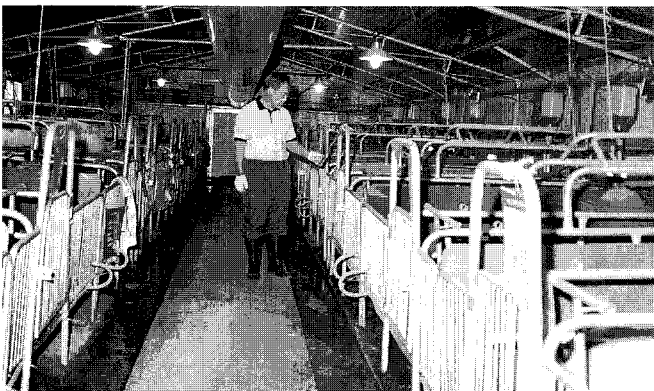
모돈 336두(후보돈 제외)에 약 4,0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현장직원 4명과 경리직원 한명이 있다. 매월 15-20두의 후보돈을 가아육중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월 평균 분만 복수는 65두, 평균 산자수는 9.7두, 이유두수는 9.1두이다. 관리의 편이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여름부터 2주간 관리를 도입했으며, 지난 4월부터 완전히 한바퀴를 돌고 자리를 잡았다. 2주간 관리로 인한 큰 시설 보완은 없었으며, 35두가 한 그룹이 되어 이유부터 출하까지 함께 이루어진다.

돈사는 대부분 무창돈사이나 일부 톱밥돈사도 있으며, 비탈진 산기슭에 위치함에 따라 다소 노동력이 많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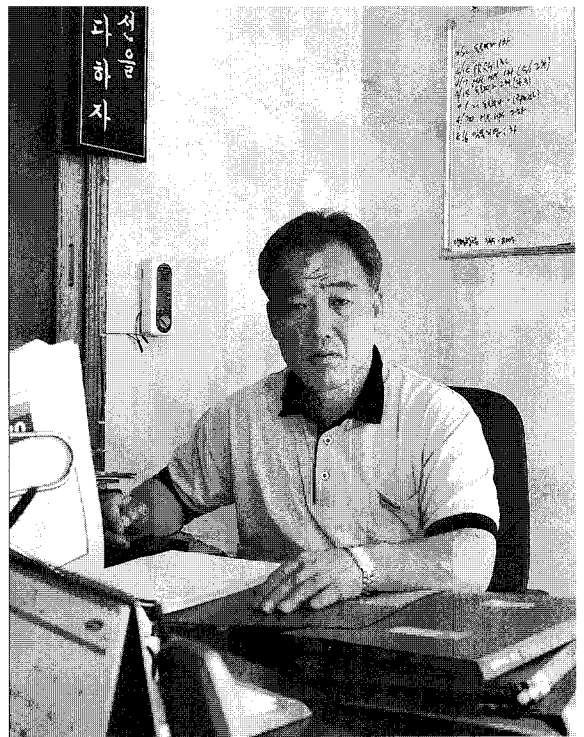
철저한 차단방역과 빠짐없는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발생하는 총 20여톤의 분뇨 가운데 약 50%는 에스컬레이트식 톱밥퇴비사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50%는 톤당 1만 2천원씩 해양 투기하고 있다.

농장운영의 가장 어렵고 중요한 요소는 '직원관리'

현대축산의 가장 큰 경쟁력은 직원관리에



▲매일 직접 농장을 꼼꼼히 둘러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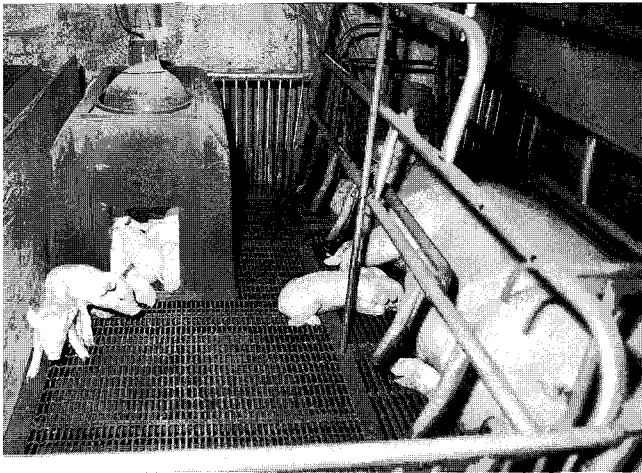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박재민 사장. 위쪽의 "최선을 다하자"란 글이 시선을 끈다.

있다. 평균 연령 30대 중반인 4명의 현장직원들은 '자신의 농장처럼 돼지를 돌보고 있다. 박 사장은 "자신이 맡은 일이 아니라도 농장안의 사소한 일들도 찾아서 하는 직원들은 드물다"며 "박경원 농장장을 비롯, 전 직원들이 서로 돕는 매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농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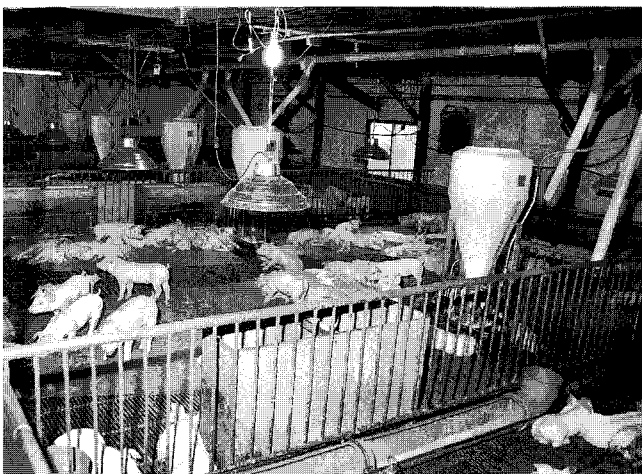
그러나 현대축산의 월급이 타 농장에 비해 매우 높거나, 직원복지 등 처우가 매우 뛰어난 것도 아니다.

물론, 농장 내에서 직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무실 옆에 거주공간을 만들어 주는 등 처우가 그리 나쁜 편도 아니지만, 농장에 대한 깊은 정성은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박 사장은 직원관리의 핵심을 "인간적인 관계"라고 표현한다. 어느 농장을 가나 임금은 비슷비슷하다. 또 요즘 같은 때 갈 양돈장이 없어서 못하는 직원도 없다.



▲임신 스톨사



▲초기 이유자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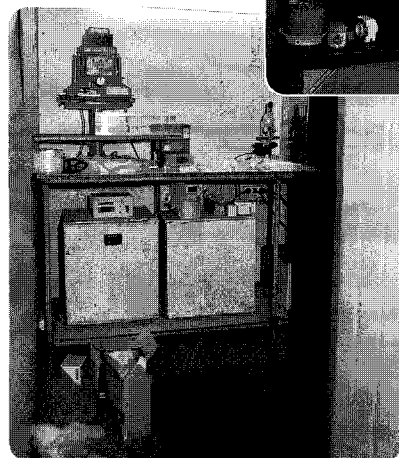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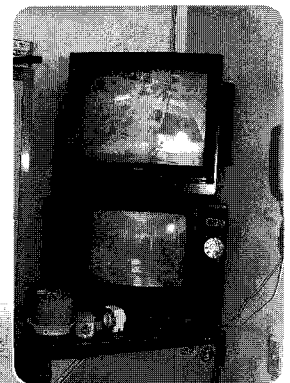
▲자돈사

“금전적 문제보다는 직원과 농장주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박 사장의 말이다.

박 사장은 종부나 분만 등 농장 일이 많을 때 밤 11시, 12시까지 직원들과 같이 작업을 한다. 뒷짐지고 하는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직원들과 맘을 섞어가면서 신뢰를 쌓는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의사표현 즉, 말에 대해 항상 조심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말 한마디에 감정 상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충분히 좋은 말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서로 감정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항상 직원들에 대해 “애정표현”을 하려고 노력한다.

마음보다는 말이, 말보다는 행동이 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 사무실 내부에서 외부 차량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가 크다.



▲돈사 내부에 인공수정실을 마련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활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직원들의 개인적인 어려움까지 관심 가져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농장과 다른 특이한 것은, 앞서 말한 농장 운영에 관한 사항들 외에 '농장 밖'의 직원 개인의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박 사장은 직원이 카드 빚에 몰려 어려운 상황일 때 믿고 돈을 빌려주고고 했으며(돈을 떼인 적도 있다), 상을 당하거나 집안의 결혼 등 행사를 정성껏 챙기는가 하면, 직원들이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경찰서로 달려간다.

어렵고 험한 일에 앞장서는 인간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 현대축산은 안정된 농장경영을 실현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돼지에 남다르게 애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미 농장을 그만 둔 직원들과도 항상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다.

양돈장 관리를 2주간 관리로 바꾸면서 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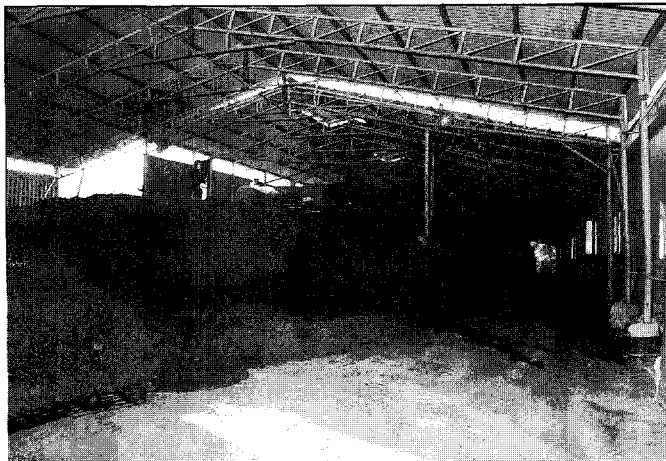
▲박재민 사장

이 부족할 때 그만 둔 직원이 찾아와 농장 일을 돕는가 하면, 갑자기 사람이 그만두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항상 예전 직원들이 도움을 준다고 한다.

한편, 올해 50세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현대축산 박재민 사장은 최근 양돈업에 대해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다. 많은 사육두수와 크게 감소한 소비, 8-9개월째 계속된 낮은 돈가로 하반기 돈가 하락 시기에 많은 양돈장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늘어난 사육두수를 소비확대와 수출다각화 등으로 풀어나가야 하나, 양돈농가 스스로 경쟁력없는 양돈농가들이 떨어져 나가 적정 사육두수가 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우리 양돈인 모두가 같은 식구이며, 다 같이 살아남을 방법을 힘을 모아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대축산 박재민 회장은 어떻게든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을 올리려는 다른 양돈인과는 약간 다르게 보인다. 김해시 검도협회장을 맡고 있고, 라이온스 클럽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어쩌면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양돈인일 수 있다.

예년 보다 훨씬 낮은 돈가로 전 양돈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 번쯤 한발짝 뒤로 물러서서 내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있는 모습도 필요하다. **양돈**



▲일일 10여톤의 슬러리를 처리하고 있는 에스컬레이트식 톱밥 퇴비사